

## 주요 주간 동향 리스트

2021년 4월 2호

## ◆ 주요 동향

1. 수에즈 운하의 '길막' 사례로 본 공급사슬 혁신 방향  
从苏伊士运河堵塞案看国际贸易的运输风险与供应链创新
2. COSCO, 신조선 발주 가능성 있어  
中远海运或要造箱船了!
3. 선사들의 잇따른 유라시아 복합운송서비스 개통  
解析船公司不约而同拓展亚欧海铁物流产品的背后
4. 「녹색채권 지원 프로젝트 리스트 (2021 년 판)」 발표  
《绿色债券支持项目目录 (2021年版)》印发 船舶港口污染防治及绿色船舶制造纳入支持范围
5. 정책지원과 시장수요에 급물살 타는 중국의 콜드체인물류  
政策市场双发力 冷运升级进行时
6. 국무원, 항만요금 징수정책 보완 의견 발표  
国务院办公厅：进一步完善港口收费政策 减并收费项目
7. Ningbo Zhoushan 항, 1천만TEU 물동량 컨테이너 선석군 완공  
宁波舟山港首个“千万级”集装箱泊位群全面建成
8. 칭다오항, 전국 최초로 컨테이너 소독·세척에 로봇 사용  
全国首创! 山东港口青岛港集装箱消毒冲洗用上机器人

\* 본 주요 동향은 중국의 주요 언론기사를 번역한 내용임

## ◆ 기타 동향

9. 산둥성 연해 항만, 2035년까지 세계일류의 스마트 항만 구축 위해 힘써  
对标一流 聚力“智高点” 山东沿海主要港口2035年实现国际领先  
[https://www.mot.gov.cn/jiaotongyaowen/202104/t20210421\\_3576024.html](https://www.mot.gov.cn/jiaotongyaowen/202104/t20210421_3576024.html)
10. 광저우, 상하이, 탕산 3개 항만 “쌍순환 항로 협력” 협의 체결  
广州、上海、唐山三港签订《双循环航线合作协议》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2104/t20210426\\_1351985.shtml](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2104/t20210426_1351985.shtml)
11. 석탄 공급부족 가중으로 인한 연해 석탄운송시장 위기 맞아  
供给偏紧叠加多重因素影响沿海煤炭运输市场面临挑战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2104/t20210426\\_1351973.shtml](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2104/t20210426_1351973.shtml)
12. 주문폭주! 조선업 다시 호황  
订单火爆 造船业盛况重现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2104/t20210426\\_1351970.shtml](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2104/t20210426_1351970.shtml)
13. 상하이해양대와 CIMC(中集海工)가 함께 개발한 스마트 해양오염 정화시스템 및 검사로봇 선상 시험 완료  
上海海洋大学联合中集海工研发海洋平台智能清污与检测机器人完成实船试验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2104/t20210426\\_1351934.shtml](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2104/t20210426_1351934.shtml)
14. “RCEP 역내 경제협력 공동 추진을 위한 칭다오 이니셔티브” 정식 발표  
《关于共同推进RCEP区域经贸合作青岛倡议》正式发布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2104/t20210426\\_1351929.shtml](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2104/t20210426_1351929.shtml)

작성자 : 장원형 중국연구센터 연구원

육천연 중국연구센터 연구원

김은우 중국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감수자 : 한광석 중국연구센터 센터장

([kmishanghai@naver.com](mailto:kmishanghai@naver.com))/+86-21-6090-0395)

## 수에즈 운하의 ‘길막’ 사례로 본 공급사슬 혁신 방향

- ‘에버 기븐(Ever Given)’호 좌초에 따른 수에즈 운하 막힘 사태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탈리아 유조선 한 척이 엔진 고장으로 운하에 갇히면서 수에즈 운하가 또 다시 막힘에 직면했음
  - 수에즈 운하에서는 약간의 지연과 막힘에도 화물과 상품의 인도에 방해가 되고, 공급망 운행에 지장을 주며, 전 세계 공급사슬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침
  -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운하의 하나로 전 세계 무역의 약 12%, 화물선의 15% 및 약 30%의 석유가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고 있음
  
- 운하 정체는 세계 무역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동시에 다른 수송방식도 발전시켰음
  - 실제로 ‘에버기븐’호 사건 발생 뒤 중국의 중-유럽 화물열차 관련 물류회사에 대한 많은 문의가 쏟아졌는 바, 이러한 사실은 현재의 각종 운송 여건과 보관기술이 충분히 발전한 상황에서 해운만이 더 이상 유일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음
  - 4월 8일 상무부 브리핑에 따르면 올해 1~2월 여행서비스를 제외한 중국의 서비스무역은 21.1% 증가했으며, 이중 수출은 29.1%, 수입은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서비스수출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한 분야는 운송으로 93.9% 증가함
  
- 한편, 이번 수에즈 운하 정체 사건은 운송 리스크 측면에서 운송방식의 최적화와 공급사슬의 혁신발전에 객관적인 요구를 제기하였음
  - 최근 상무부 등 8개 기관은 「전국 공급사슬 혁신 및 응용 시범 창설 사업 전개에 관한 통지」를 공동 발표했음
  - 향후 5년간 전국 공급사슬 혁신 및 응용 시범 도시와 기업을 육성하고 중국의 공급사슬 협동화, 표준화, 디지털화, 친환경화, 글로벌화 발전과, 생산 및 공급과 판매의 연결, 대내외 무역을 효과적으로 관통하는 현대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한다는 계획임
  
- 수에즈 운하 정체 사건은 운송 리스크 측면에서 운송방식의 최적화와 공급사슬의 혁신발전에 객관적인 요구를 제기하였음
  - 이것은 또한 수출입의 안정적 발전을 촉진하고 대외 무역의 안정 속에서 질적 향상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임

(航运评论, 2021. 4. 19.)

[https://mp.weixin.qq.com/s/rQOZX4cDXijVlt\\_eSvDM5Q](https://mp.weixin.qq.com/s/rQOZX4cDXijVlt_eSvDM5Q)

## COSCO, 신조선 발주 가능성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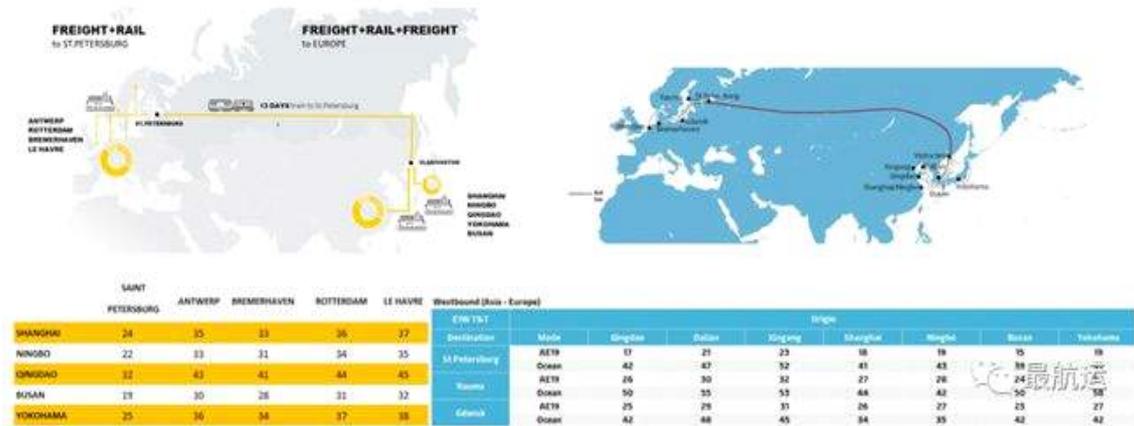
- 또 한 차례의 컨테이너선 '수주 러시'가 전 세계 신조선 시장의 최대 화두로 부상함
  - 2020년 하반기의 컨테이너 해상운임 급등과 저금리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선주 및 정기선사들이 잇따라 신조선을 발주했음
  - 클락슨에 따르면 2021년 4월까지 컨테이너선 수주 비율(手持订单比例)은 15.41%로 2017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 드류리는 지난해 11월 이후 확인된 컨테이너선 신규 수주액이 70억 달러를 넘는다고 집계했음
  
- 최근 COSCO도 조만간 최대 25척의 Neopanamax급 컨테이너선을 발주할 것이라는 소식이 여러 채널을 통해 전해지고 있음
  - TradeWinds에 따르면, COSCO그룹은 산하의 COSCO Shipping Lines 및 OOCL을 통해 최대 25척(최대 30억 달러)의 파나막스급 컨테이너선을 수주할 계획임
  - 조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COSCO Shipping Lines가 10척(6+4)의 13,000TEU급(포스트파나막스급) 발주를 검토 중이나, 아직 최종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선박의 사이즈가 15,000TEU급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힘
  - 이에 앞서 OOCL이 10척 15,000TEU의 LNG 이중연료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약 13억 달러에 발주할 것을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음
  - Alphaliner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현재 COSCO의 컨테이너선 운송능력은 4,000TEU로 CMA-CGM을 근소하게 앞지르고 있음
  - 현재 CMA-CGM의 신규 발주량은 354,024TEU인 반면, COSCO의 발주량은 276,000TEU임
  
- Alphaliner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컨테이너선 신규 발주량은 200만 TEU를 넘어섰으며, 이중 상당수는 최근 몇 주 동안에 확인된 내용임
  - 2021년 3월 20일 현재 신규 발주량은 122만 TEU이며, 최근에 새로 확인된 EVERGREEN(15,000 TEU 컨테이너선 20척)과 WAN HAI(13,200TEU 컨테이너선 5척)의 대형 컨테이너선 발주까지 포함하면, 2021년 1분기 신조선 발주량은 최근 몇 년간 최고치이며, 증가율 또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신조선 발주 러시는 현재 용선시장의 공급부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함

(新航运在线, 2021. 4. 15.)

<https://mp.weixin.qq.com/s/e9jViM5NQDNKnWbBFilxyQ>

## 선사들의 잇따른 유라시아 복합운송서비스 개통

- 2021년 4월 12일 머스크는 유라시아 복합운송 서비스인 AE19 서비스의 업그레이드를 발표함
- 아시아항 화물열차는 2주당 1회에서 주 1회로, 유럽항 화물열차는 주 2회에서 주 4회로 각각 운행 빈도를 늘림



- 같은 날 MSC도 서비스 지역과 운송시간이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함
- MSC는 Sea & Rail(블라디보스톡/보스토치니항-상트페테르부르크) 복합운송을 통해 유럽의 주요 허브인 앤트워프, 브레멘, 로테르담, 리아브르를 중국, 한국, 일본 등 아시아의 주요 항만과 연결함
- MSK는 Sea & Rail(보스토치니항-상트페테르부르크) 복합운송을 통해 핀란드, 폴란드, 독일,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북유럽 항만을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항만과 연결함
- 선사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유라시아 Sea & Rail 복합운송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보여짐
- 선사의 'end to end' 물류서비스 확장 수요가 갈수록 절실해지고, 시장수요에 대한 대응도 점점 빨라지고 있는 바, 유라시아 Sea & Rail 복합운송 서비스는 항공과 해운 틈새 시장수요에 빠르게 대응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고객들이 보다 확실한 대안으로 추구하는 가운데 코로나19와 이번 수에즈운하 사태와 같은 블랙스완 사건의 영향으로 러시아 간선철도 운송을 통한 안정적인 인도시간과 신속한 통관 효율은 돌발사건이 야기한 단일 운송방식에 대한 충격을 피하고 공급사슬 전체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증진시켰음

(新航运在线, 2021. 4. 15.)

<https://mp.weixin.qq.com/s/dpx7z10sGxteyFMIjcAhJA>

## 「녹색채권 지원 프로젝트 리스트 (2021 년 판)」 발표

- 최근 인민은행,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는 공동으로 「녹색채권 지원 프로젝트 리스트(2021년 판)(이하는 리스트로 약칭)」를 발표했다
  - 녹색채권은 모집자금을 규정에 부합하는 녹색산업, 녹색 프로젝트 또는 녹색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채권으로, 법정절차에 따라 발행되며 약정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유가증권임
  
- 이번 「리스트」에는 수운산업의 다수 분야가 지원 범위에 포함됨
  - 선박의 항만 오염 방지 및 관리 측면에서는 주로 항만의 유증기 회수시스템 구축, 선박 배기가스 후처리 장비 설치, 광석 터미널 방풍방진 시설 건설, 선박 오염물질 회수시설 건설, 육상전력시설 건설 등 오염 방지 시설의 건설과 기술 개조, 선박 평형수로 인한 외래종의 침입 위험 방지시설 건설 등이 포함됨
  - 녹색선박 제조 측면에서는 주로 LNG 추진선, 전력 추진선, 풍력 및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추진선,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 에너지 시공선박 등 녹색선박의 제조, 구매 및 무역 활동이 포함됨
  - 또한, 풍력 발전장비 제조뿐만 아니라 항만, 터미널 육상전력시설 등도 녹색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이번에 발표된 「리스트」는 중국의 녹색채권 시장을 보다 규범화하고, 보다 많은 자금을 녹색산업과 녹색 프로젝트를 지원하도록 유도하며, 녹색채권의 지원 범위와 국제시장의 관련 표준에 수렴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보장을 제공할 것임
  - 첫째,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기준을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히 정의함. 석탄 등 화석에너지의 청정이용과 같은 높은 탄소 배출 프로젝트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시켰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중대 피해 없음' 원칙을 채택해 탄소 감축에 대한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함
  - 둘째, 채권발행 관리 모델을 보다 최적화함. 처음으로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녹색채권 관련 관리부서의 정의 기준을 통일하여 녹색 채권 발행, 거래 및 관리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녹색채권시장의 가격 효율성을 향상시켰음
  - 셋째, 중국의 녹색채권 발전에 안정적인 프레임워크와 유연한 공간을 제공함

(中国水运网, 2021. 4. 23.)

<http://www.zgsyb.com/news.html?aid=588389>

## 정책지원과 시장수요에 급물살 타는 중국의 콜드체인물류

- 소비 업그레이드와 국제전자상거래 증대, 그리고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중국의 콜드체인 물류산업은 급속도로 확대되는 추세임
  - 중국의 콜드체인물류 시장규모는 2014년 1,500억 위안에서 2020년 4,850억 위안으로 늘어났으며, 2025년에는 그 규모가 5,500억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콜드체인물류 시장규모는 2017년부터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2020년에는 28.3%의 증가율을 기록함
  - 한편, 2020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의 여파로 중국의 수입 신선식품 물량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업계 전반에 디지털화, 온라인화를 앞당기는 계기로 작용함
- 현재 중국 정부는 콜드체인과 관련한 인프라, 식품안전, 업계방역지침, 냉동식품추적 플랫폼 구축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들을 지원하고 있음
  - 2020년 7월 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는 최초로 17개의 핵심 콜드체인 물류기지 리스트를 공식 발표했고, 또 농업농촌부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중앙정부는 허베이(河北), 산시(山西) 등 16개 성시에 콜드체인 창고건설 비용으로 50억 위안을 투입했음
  - 국가발전개혁위는 '14·5'기간 콜드체인물류의 고품질 발전과 관련된 계획을 편성하고 이를 촉진하는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며, 콜드체인물류 고품질 발전에 제약이 되는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계획임
  -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관련 정책과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이는 콜드체인물류 업계에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안겨주는 셈으로, 업계는 최근 신선식품 운송노선을 늘리며 기회를 잘 활용하고 있는 추세임
- 이밖에 글로벌 콜드체인 Sea & Rail 수송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서비스 또한 함께 성장 중임
  - 최근 머스크 콜드체인의 첫 해상-철도 연계운송 상품인 지닝시(济宁西)역~칭다오항 냉동 전용열차가 출범했으며, “마늘열차” 라고도 불리는 이 열차는 고객 맞춤형 상품으로 양질의 마늘을 세계 각지로 운송하는 원스톱 콜드체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 머스크는 앞으로 내륙의 드라이포트를 연결하는 서비스도 개통하고 컨테이너 온도제어 관리 시스템 (Captain Peter)을 통해 'Port to Port'에서 'End to End'의 전 과정 신뢰 가능한 콜드체인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임
  - 식품 콜드체인에 주력하고 있는 CULINES(中联航运) 또한 두리안 전용 태국노선을 기존 주말편성에서 주중으로 전환했으며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화물의 안전 보장과 추적에 활용하고 있음
  - “마늘열차”와 “두리안항로” 외에도 최근 일부 정기선사는 “체리익스프레스”, “랍스터아이스박스”등 특정 신선식품을 겨냥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 수요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021. 4. 20. 中国水运报)

<http://www.zgsyb.com/news.html?aid=587928>

## 국무원, 항만요금 징수정책 보완 의견 발표

- 2021년 4월 15일 국무원은 “6대 안정 6대 보장”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팡관푸(放管服·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 적용에 관한 의견(国务院办公厅关于服务“六稳”“六保”进一步做好“放管服”改革有关工作的意见)을 발표함(이하 “의견”)
- “의견”에서는 취업환경을 개선하고, 시장 주체들의 부담을 완화해 더 효과적인 투자확대를 추진할 것과 소비 잠재력을 키우고 대외무역과 외자를 안정화한다는 계획을 제시함
- 또한 민생 서비스 개선과 관리감독 체계를 더 강화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해운업계는 다시 “팡관푸” 호재를 맞을 것으로 예상됨
  
- 항만요금 정책 관련 의견 요약
- ‘항만요금 산정방법’ 개정을 추진하여 항만비용 정책을 보완하고 항만요금의 통폐합을 실시
- 연해항만의 도선료 기준을 낮추고 선사들이 예인선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확대
- 컨테이너 세척 및 유지보수 서비스규정을 보완하고 ODCY 내 컨테이너 세척비와 철도운송의 개폐 비용 등을 규범화
- 통관비용 리스트 제도를 시행하여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은 징수하지 않도록 할 것
- 정부가 원가에 따라 책정하는 요금항목에 대해 원가 감사나 조사를 실시하여 요금표준을 적시에 조정
- 시가에 따라 조정되는 요금항목과 관련 징수 기관에 대해 원가조사를 실시하여 요금 합리화 및 규범화 근거를 제공

(国家政务服务平台, 2021. 4. 15.)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1-04/15/content\\_5599655.htm](http://www.gov.cn/zhengce/content/2021-04/15/content_5599655.htm)

(海事服务网CNSS, 2021. 4. 17.)

<https://mp.weixin.qq.com/s/BRklzsAg56YNcRy1WTarCA>

## 닝보저우산항, 1천만TEU 물동량 컨테이너 선석군 완공

- 2021년 4월 16일, 닝보저우산항 찬산항구(穿山港区)의 컨테이너 터미널의 1번 선석이 준공 검수를 통과하며 세계 2위 규모의 단일 컨테이너 터미널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됨
  - 본 건설사업은 찬산항구 컨테이너 터미널 서쪽 구간 확장공사로 7만 톤급 선석과 안벽크레인 및 변전소, 터미널 수도와 전기 등 부대시설이 포함되며, 연간 설계 하역능력은 62만TEU임
  - 2018년 12월에 착공해 2020년 6월에 공사가 완료된 이 터미널에는 총 4억 3천만 위안이 투입되었음
  - 찬산항구 컨테이너 터미널은 닝보저우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핵심으로 기존의 10개(2-11번) 대형 및 특대형 심수 컨테이너 선석에 이번에 검수를 마친 1호 선석까지 포함하면 총 11개 선석을 보유하게 되며, 터미널의 안벽길이는 3,740m로 늘어남
  
- 관련 계획에 따르면, 닝보저우산항에는 ‘연간 물동량이 1천만TEU’ 컨테이너 터미널을 총 5개 확보할 예정이며 이 중 닝보는 찬산, 베이룬(北仑) 다시에(大榭) 각 1개, 메이산(梅山) 구역에 3개의 ‘천만급 컨테이너 선석군’을 구축할 예정임
  - 현재 닝보저우산항 찬산항구 컨테이너 터미널은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기항이 가능하고, 4년 연속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이 1천만 TEU를 초과했으며, 이는 닝보저우산항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40%를 차지함
  - 닝보항만구역 전체에 총 350개의 선석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10만 톤급 이상 선석은 32개로 닝보저우산항의 세계일류 항만건설 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

(宁波舟山市政府, 2021. 4. 19.)

[http://jtj.ningbo.gov.cn/art/2021/4/19/art\\_1229471622\\_59018343.html](http://jtj.ningbo.gov.cn/art/2021/4/19/art_1229471622_59018343.html)

## 칭다오항, 전국 최초로 컨테이너 소독·세척에 로봇 사용

- 최근 칭다오항과 칭다오의 ASIntell(澳西智能)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컨테이너 자동 소독·세척 로봇 및 부대시설의 테스트가 완료됨
  - 이에 따라 컨테이너 소독·세척의 전 과정에서 언택트와 자동화를 실현하여 컨테이너 방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됨
- 컨테이너의 소독과 세척은 항만 물류서비스 방역에 중요한 요소로, 안전을 위해 수입 냉동 컨테이너와 고위험지역에서 운반된 일반 컨테이너에 대해 전면적인 소독과 세척을 해야 함
  - 현재 국내 터미널의 컨테이너 소독과 세척은 대부분 수동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방호용품을 착용한다고 해도 여전히 감염 위험이 존재함
- 컨테이너 자동 소독·세척로봇이 실제 운영에 투입되면 원거리에서도 세척 작업이 가능하며 자동화 시스템이 컨테이너 전체 작업 흐름을 원활케 해 공컨 조달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본 첨단 설비에는 이동식 소독 및 세척로봇, 고정식 소독 및 세척설비가 각각 포함되고 이 중 이동식 소독, 세척로봇의 분사 거리는 20m이상으로 12m 컨테이너 세척에 충분함
  - 최대 1.3km 원거리에서 원격조정과 이미지 전송이 가능하여 전염병 방역에 있어 감염 위험을 현저히 낮추고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함
  - 고정식 설비는 원터치 제어 방식으로 세척시간 등 작업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동식 로봇은 컨테이너 구석구석을 세척하는데 용이함
  - 본 설비는 기존 수동식 세척에 비해 노동력은 절감하고 전체 효율은 50% 높이게 될 것임

(2021. 4. 22. 中国水运网)

<http://www.zgsyb.com/news.html?aid=588319>